

국제연합(UN)윤리 서미트의 개최와 지구 윤리 국제일의 창설을 호소함

지구시스템 . 윤리학회
회장 핫도리 에이지(服部英二)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보다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슬기로운 지혜를 지구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수십만 명의 삶의 터가 파괴 되고 더구나 해일에 의해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삶의 방법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인 대지(大地)」의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을 조절하고 지배 한다」라는 17세기부터의 과학문명은 인류를 파멸로 향하게 한 「힘의 문명」이며, 이성 지상주의의 아버지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존중을 지상의 가치로 하는 어머니 원리가 바탕이 된 「생명의 문명」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화목의 문명」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의 저변에서 서로 통하는 윤리와 이 윤리를 기초로 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미래의 세대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의 창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결국 과거의 전쟁에서 또한 현재의 평화로운 삶에서 원자력의 희생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은 세계사회에 핵을 폐기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본 학회로서는 일본은 지금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에너지 문제에서 탈 원전으로 방향을 전환 할 것을 호소할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의 불행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세계에 대한 공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으로 만연한 윤리의식의 결핍입니다. 이는 미래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남용하고 고갈시키는 것뿐입니다. 또한 영원히 유독한 폐기물과 점점 커지는 책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되며 이는 윤리의 근본에도 반대됩니다. 시장원리주의에 의한 빠앗는 문명에서의 탈피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본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국제연합 윤리 서미트를 개최하여 「지구 윤리 국제일」을 창설함으로써 매년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세계사회에 제창하는 바입니다.

학회 사무국 E-mail:ntatiki@reitaku-u.ac.jp
(우) 277-8686 일본국 치바켄 카시와시
히카리가오카 2-1-1
레이타쿠대학 연구실 B 동 다치기 연구실
학회 URL: <http://www.jasgse.com/>